

##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 활성화 추진

안 현 중 | 건설공제조합 기획부장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처럼 국내 건설시장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건설산업이 타 산업의 경기 영향 아래 있는 경기 산업이자 수주 산업임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 저성장 전망이야말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시사하는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건설업체는 국내에서 해외로 눈길을 돌려 지속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해외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업계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2000년 54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주액이 2010년에는 716억 달러에 이르러 10년 사이 13배가 넘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지원

은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금액은 2007년 67억 달러, 2008년 72억 달러, 2009년 55억 달러, 2010년 47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건설 활황 속에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수주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체에게 수주의 과실이 공유되도록 하는 수주 업체 다변화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 해외 보증 공급, 단단계 복보증으로

해외건설에 수반되는 보증은 대부분의 발주자가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요구한다. 전업 보증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의 경우 동남아와 미주 등의 지역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보증은 현지 금융기관의 직보증(direct-primary, 1단 보증)부터 지역별·발주자별로 2단, 3단의 복보증 구조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보증 구조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발주 국가의 법령과 관행이다. 중동의 경우 현지 법령을 통해 건설사업에 대한 보증을 현지에 본사를 둔 은행 또는 현지에 지점망을 갖춘 Global Bank의 지급 보증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요 동남아 국가의 경우 발주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

**경영 정보**

는 현지 은행 또는 현지에 지점을 둔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한정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만약 발주자가 계약 서식을 통해 현지 은행이나 Global Bank를 원보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시공자의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구상 보증을 요구하게 되고, 업체는 이에 따라 2단 이상의 복보증을 통해 보증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건설업체의 신용도다. 국내 시중은행은 업체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보증 한도 총액을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수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보증 한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신용도가 열위한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비은행 보증기관의 부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즉, 국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유로 구상 보증을 요구하는 해외 은행과는 달리 국내 시중은행은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부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 경우 중소기업은 2단, 3단 복보증 구조를 통해 보증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발주 국가,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함

께 공사(보증 금액) 규모 또한 복보증의 주요 요인이다. 발주자가 보증 발급기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약 금액이 몇 억 달러, 많게는 몇 십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공사의 경우 보증 금액 전액을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부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과 비은행 보증기관 간 보증액 분담을 통해 보증 발급이 이루어진다.

**해외 보증 애로가 진출 장벽으로**

요컨대 은행 보증의 보편화, 발주 지역의 관행, 차주 리스크 중심의 보증 지원 관행 등에 따라 해외 보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해외 보증에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높은 보증료 부담을 들 수 있다. 복보증 중심의 보증 구조에 따라 매 보증마다 보증료가 누적되면서 보증료가 최대 4~5%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증료 부담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업체간 과도한 수주 경쟁 양상과 더불어 해외 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업체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에 특화된 보증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문제점도 대다수의 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 업무와 동시에 대상 산업인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설 보증 업무의 특성상 신용 공여의 범위를 전 산업으로 하고 있는 은행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인 여신 한도와 보증 한도를 유사한 성격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한도 운용 방식으로 인해 건설업체에 충분한 수준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 지원의 여부 및 폭이 결정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마다 다양한 발주 관습이 존재하고, 발주자마다 고유한 계약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계약 조건 분석을 통한 사업성 심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업성 심사보다 업체의 신용도에 근거한 보증 심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술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신용도를 이유로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발생하게 된다.

**실질적 해외 보증 지원 방안 모색**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몇 년간 해외

보증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보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탄력적인 보증 심사를 위해 기존의 해외 보증 전용 상품인 '지급 보증의 보증'을 정비한다. '지급 보증의 보증'은 은행과의 위험 분담(risk-sharing)을 골자로 하는 보증 상품으로 기존 3개 제휴 은행 외에 주요 시중은행과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신용도는 부족하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보증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업체의 보증 신청서 가심사를 바탕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케이스에 한정하여 실질 심사를 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신청 건에 대하여 실질 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

행 중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 공사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공사 등에 대하여 심사 우대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 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현행 법령상 조합이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 보증이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보증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간접 보증의 경우 관련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외환 취급 가능 금융기관으로 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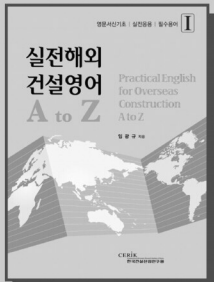
부족한 대외 공신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해외 주요 발주처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합 설명 활동(IR)과 함께 조합을 보증

및 부보 발급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를 지속 타진할 계획이다. 그 사전 작업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신용 등급을 획득할 예정이다.

이제 건설공제조합이 은행 보증과 복보증 구조 등의 기존 관행을 뚫고, 건설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해외 보증 지원에 나선다. 해외 보증이 복보증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행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의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유관 기관, 건설업계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